

특/별/기/고

문석남



옛것에 봄인가 싶더니 초여름 날씨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로 이름난 우리나라도 명확한 계절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지구상의 생존이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진국들은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줄이기로 의결했다. 작년 12월에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재앙은 예방해야 한다

응하기 위해서 범지구적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선진국은 온실가스의 측정과 보고는 물론 검증 가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적응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재정지원과 산림보전과 전용방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 태평양의 외로운 섬 투발루가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가옥들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중국은 50년만의 대폭설로 이재민이 1억 명이나 발생했고 경제적 피해도 10조원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5년만의 한파로 750명이 사망했으며, 스리랑카는 홍수로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천300여 채의 가옥이 피해를 보았고, 미국 시카고 지역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도 강한 바람과 폭설로 대부분의 지역이 고립된 바 있다.

기후변화는 기온상승과 해수면상승, 강수량변화에 의한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고, 우리 인간과 자연계에도 식량과 수자원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수형태와 보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7년 2월 IPCC의 제 4차보고서에 의하면, 현 상태의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금세기 안에 지구표면온도는 섭씨 1.8~4.0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59cm까지 높아져 폭우, 가뭄, 폭염 등이 빈발하여 인류에 재앙과도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있다.

또한 2006년 스텐 보고서(Stern Review)에서도 세계 각국이 매년 GDP의 1%를 투자해야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CO2)농도를 550ppm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인류가 이를 방치하고 방관할 경우 온난화에 대한 비용은 세계 GDP의 5~20%에 이르러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도 아시아몬순의 변화로 인하여 수자원과 농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해수면상승과 해안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청정 에너지의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축하거나 CDM(정정개발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배출권을 획득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실천적 활동과 함께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대불대 석좌교수·한국 기후변화센터 지도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U대회 광주 유치 정부가 마무리하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광주 실사가 5일 끝났다. 이번 실사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이다.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실사단은 시민이 보여준 뜨거운 유치 열기에 감동했고, 3차례에 걸친 프레젠테이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은 "실사단은 광주의 대외 개최 준비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실사단은 시민들의 대회 유치 열기에 대해 '엑셀러트' '환타스틱'이라는 용어를 동원하는 등 극찬을 쏟아냈다. 시민 환영행사 등에 참가한 연인원 20만명의 광주 시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광주시민의 이런 열기는 대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개최지를 결정하는 FISU 집행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이번 실사결과를 종합한 치밀한 득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당초 러시아 카잔과 2차전이 예상됐지만 스페인 비고의 전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앞서 실사를 받았던 비고가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했기 때문이다. 득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정부의 총력지원이 절실하다.

한수수 국무총리는 3일 실사단에 정부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지원책을 내놓아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움직여야 한다.

집행위원들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만큼 해외 공관 등을 앞세운 총력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 등 민간외교를 이용한 득표전략도 필요하다.

미곡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재협상을 촉구하며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선동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 담화문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민심은 심상치 않다. 촛불집회 등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광우병 '과문'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전문가 등이 각종 수치를 인용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해명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긴급 담화문도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뒤에야 나왔다.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문제다. 질 좋은 쇠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됐다거나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수입 및 검역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분질에 따라 정평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 쇠고기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의 진상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정치적 선동'으로만 모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검역 기준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입으로 인기를 깨먹은 대통령은 없었다. 5년 임기 내내 국민들이 국가의 품격을 걱정할 정도였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 내용은 저서 '이웃사ider 콤플렉스'에서 "배고픈 시대의 저항·고발 모드를 고수한 채 '싸가지 없는 말'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투쟁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 친노(親露) 그룹을 혹평했다.

강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웃사ider 기질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늘 모든 것을 다 걸고 도박을 하는 '올인'의 상례화도 빼놓을 수 없다. 막중한 공적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자신은 잃을게 없다는, 극도의 책임윤리 부재현상을 보인다"고 노 전 대통령의 화법을 비판했다.

허를 잘못 놀려서 화를 당하는 것이 설화다. "광주 확산은 중국 천안문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노태우 전 대통령), "노인들은 투표 하지 말고 집에 계셔도 된다"(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대표)

특히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발언에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값싸게 먹는 것"이라거나 "(소득) 4만달러가 되면 수입 쇠고기 먹느니 한우 고급을 먹겠다"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 차원에서만 본다면 타당할 말일지 몰라도 '검역주권 포기'를 비난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국민 정서의 총화를 대표하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대표)는 설화의 대표적 케이스다. 실언으로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도 수준급이다.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인지 이 대통령의 화법은 복선이 없고 직설적이다. 시장 논리와 실용적 사고도 깊이 배어 있다. 그래서인지 설화에 휘말릴 때도 많았다. '서울시 봉헌', '장애아 낙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 특히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발언에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값싸게 먹는 것"이라거나 "(소득) 4만달러가 되면 수입 쇠고기 먹느니 한우 고급을 먹겠다"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 차원에서만 본다면 타당할 말일지 몰라도 '검역주권 포기'를 비난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국민 정서의 총화를 대표하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설화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입으로 인기를 깨먹은 대통령은 없었다. 5년 임기 내내 국민들이 국가의 품격을 걱정할 정도였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최근 내용은 저서 '이웃사ider 콤플렉스'에서 "배고픈 시대의 저항·고발 모드를 고수한 채 '싸가지 없는 말'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투쟁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 친노(親露) 그룹을 혹평했다.

특히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발언에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 값싸게 먹는 것"이라거나 "(소득) 4만달러가 되면 수입 쇠고기 먹느니 한우 고급을 먹겠다"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 차원에서만 본다면 타당할 말일지 몰라도 '검역주권 포기'를 비난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국민 정서의 총화를 대표하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법조 칼럼

정경현



지난달 21일, 전국적으로는 10번째이자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국민의 재판 참여는 사법권 역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이 열망하던 사법참여를 처음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해 메모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 역시 자신이 배심원인 양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재판부는 시민들의 이러한 모습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

중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이 끝나고 이루어진 검찰 및 변호인의 최종 진술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필자는 20년 넘게 판사생활을 했지만, 이 날처럼 검찰 및 변호인이 진지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에 못지 않게 배심원들 역시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그들은 모두 진지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지역민의 관심을 고려해, 공판기일 전에 미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 선정 및 공판준행 절차에 대해 사전당사자들과 논의하면서 재판기일을 정했다. 재판은 오전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배심원 평가가 시작된 지 무려 2시간40분이 넘는 동안 배심원들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마음에 그 누구 하나 시간을 재촉하거나 결정을 재촉하는 사람이 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배심원들 다수가 집행유예 의견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배심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따르기로 하여, 피고인은 당일 석방되었다. 이 날의 재판은 그야말로 검사, 변호인, 배심원이 각자의 위치에 서 삼위일체가 되어 혼연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감히 말한다.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검사 및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고, 후보자들은 진지하고도 섬성성의 것 답변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탄박한 후보자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인 필자로서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들의 진지한 참여와 관심,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검찰과 변호인의 열정적인 모습, 재판부의 균형있는 진행이 어우러지면 국민참여재판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배심원(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된 12명을 설득하기 위해, 검사는 영상자료까지 준비하면서 이해를 높였고, 변호인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배심원을 설득해 나갔다. 배심원들 역시 재판장 및 검찰, 변호인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메모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 역시 자신이 배심원인 양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재판부는 시민들의 이러한 모습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기고

곽복률



인류가 한 곳에 밀집해 사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 쓰레기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달 초 이같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강진환경경정화센터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접했다. 견학은 비도시청, 소각장 시설견학, 재활용품 선별체함 등 순서로 진행됐고, 쓰레기가 처리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완공된 강진환경경정화센터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2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최신시설로 일일평균 10여톤의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 곳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자

하지만 이번 견학을 통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다.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한 훌륭한 자원이 버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돼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현재 강진환경경정화센터 쓰레기 소각장에 하루 반입되는 20여 톤의 쓰레기 중 약 50%는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되고 있고, 나머지 50%인 10여 톤은 소각처리 되는데 이중 완전연소가 되지 않아 매립 처리하는 쓰레기가 하루 2톤에 달한다고 한다.

강진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매립장은 12년을 사용 목표로 지난 2006년 완공됐지만,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입이 지속된다

어린이 유괴 범죄 대처교육, 상황 따라 구체적으로

최근 경찰은 '의심스러운 실종 가솔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실종수사 대응책을 활용하고 있으니 적절히 배웠으면 한다.

미국은 FBI에 실종수사 전담반을 두고 이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왕립가마단 산하에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전담수사반에는 경찰뿐 아니라 정신분석학, 범죄학, 심리학, 아동학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한다.

또 미국의 어린이유괴예방기구는 홈페이지

면 6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전문화학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사회에서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피할 수 없지만, 분리수거만 철저하다면 귀중한 자원을 재생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 음식점 등에서 초기 분리배출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 음식점종사자 등 모든 군민을 견학대상으로 해 분리수거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

지 반복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쓰레기는 집단 활동공간인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탄생되기도 한다.

지금도 소각장 주변에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이용한 파프리카 농장과 국제규모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 2면이 조성되어 있다. 또 탄전간과 도암만을 조망할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밤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강진읍내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폭력과 격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진군청 홍보팀>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용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

사찰 문화재 관람료 사용내역 공개해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유명한 산에는 대부분 유명 사찰들이 있다. 전라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찰들은 등산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

어린이 유괴 범죄 대처교육, 상황 따라 구체적으로
최근 경찰은 '의심스러운 실종 가솔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실종수사 대응책을 활용하고 있으니 적절히 배웠으면 한다.